

어등산 관광단지 '5성급 호텔' 의무화

광주도시공사, 3월 민간 사업자 재공모·연말 사업 착공
레지던시 호텔 금지 ... 공익성·수익성 높일 방안 찾아야

광주와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3월 민간 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 6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9월 협약체결, 12월 유원지 개발 착수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하기로 했다. 지난 13년간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 모두를 위한 공익성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최근 진행된 공모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사업 재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와 공사는 재공모의 원칙을 수립해 공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거시설로의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레지던시 호텔 분양을 금지하고, 5성급 호텔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했다. 또 상업시설 면적은 기존 공모 규모를 유지하고, 투자액도 3000억~4000억원을 적정 수준으로 봤다. 시는 지난 번 공모에서 논란이 된 레지던시 호텔 분양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

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재공모에서는 5성급 특급호텔 건립을 의무화해 협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또 상가시설 규모는 기존 공모 기준이었던 연면적 2만4000여㎡로 제한하고, 과도한 투자금 탓에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다고 판단해 투자 규모도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업시설 면적을 늘릴 경우 지역 중소 상인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투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요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중견 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1건 건설업체나 투자 펀드 등과 컨소시

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시와 공사가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까지 만들어 재공모에 나선 것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 체결 등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기존 골프장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인근에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공장, 주거, 복지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도 늘어 어등산개발의 사업성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올 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본격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5·18 망언은 헌법 부정...나라 근간 무너뜨려"

靑 수석·보좌관 회의서 질타
5·18 역사 훼손 용납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나 북한군이 남파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하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서 5·18 망언 규탄 집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대구·경북지역 66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앞에서 5·18 관련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세 의원 제명과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충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

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5·18 망언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서 있고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알립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

여수·광양만권 동북아 에너지 허브 조성

26일(화) 13:30~16:0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광주일보,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가 광양만권으로도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양만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여수산단의 에너지를 LNG 등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여수산단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나아가 여수·광양만권을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는 계기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남도,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와 함께 하는 이번 세미나에 지역민들과 학계, 여수산단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명칭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 주제 발표 : 1주제-에너지 전환시대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2주제-광양만 묘도에 동북아 에너지 허브 터미널 구축
- 일시 : 2019년 2월 26(화) 13시30분-16시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주최 : 광주일보, 광주전남연구원
- 후원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光州日報社

노인 교통사고 줄이자
인지능력 떨어져 해마다 사고 급증 ▶6면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가다
루키 김기훈 2019년 1월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3월 1일(금) 오전 8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연일 20 (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원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하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